

### 거친 파도를 넘어서 ②

### 주부신행담



#### 겨울 노래

####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산다는 일은 사람이 건너야 할 사막에 들어섬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좀더 보람있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 거의 모든 이들이 답명한 과제이면서도 요즈음 내가 자주 떠올리는 난제이다.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에 성불의 비결이 있고...

여자는 늦게 철도는 사람이라 하던가. 남편의 자질구레한 마음속에 울고 웃고 아이들의 성장해가는 모습에 웃고 학교성적 때문에 웃고 또 울고 하는 나의 모습은 속인종의 속인이다. 인생을 예술로 친다면 후회없이 산다는 것처럼 완성된 예술은 없을 것이다. 되도록 후회하지 않는 버릇을 길러왔다. 풀이켜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일을 두고 자꾸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와도 통한다. 행만하면 용서하고 행만하면 이해하고 또 만족하려는 자기 수행인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훈련을 하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 말은 한번 건방진 얘기가 될까.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던 눈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중년에 들어서면서 바라는 자신의 자화상은 어느덧 긍정주의자의 모습같다. 가을이면 아무리 가난한 이라도 겨울 것이 있다고 한다. 무엇인가 달성되지 못한 꿈으로 하여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수확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은 철이 드는 일이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성불의 비결이 있다고 들었다.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진것이 스스로 찾아온다 하였으니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며...

이 주 숙 (서암 화가)

농사일을 그만두기로 한 남편은 공주운동 직후에 이곳에 와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없어 생활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흔에 달한다고 일년전격으로 아이를 임신해 많은 고민이 뒤따랐습니다. 남편은 어쩔수 없다는 듯 둘째 아이를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충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는 고귀한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편의 입을 막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무등산에 있는 중심사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5백배 기도도 했습니다.

#### "둘째에 어디 자식없는 부잣집에 줍시다" 믿기지 않는 남편의 제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남편이 외삼촌의 도움으로 영업용택시 기사로 일을 시작했고 저는 마침내 둘째 딸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렸던 남편이었지만 순산한 것만으로도 장하다며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연년생 아기를 키우자니 보통 함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던 어느날 아무런 표정으로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뒷방에 교통사고도 뒤따라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3주 진단이 나왔지만 피해자 쪽

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해서 남편은 날마다 피해자를 찾아가서 빌다시피 했고 많은 시일이 걸려서야 그 일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시간 일을 못한다 별금 20만원을 대대로 내지 못해 방색까지 속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둘째아이를 안고 집을 막이는데 남편이 종이폭자에 무엇인가를 써서 건네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둘째아이가 어디 자식없는 부잣집에 주는게 어떻겠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생

각을 다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남편이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같이 아파, 당신 힘든 줄 알아야.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세상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비참함이었습니. 아이도 따라 울었습니다. 남편은 가끔씩 이같은 제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은 내게 공주를 떠나 서울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사비용도 없는데다 아이를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참에 둘째를 누구 집에 주고 가자 했지만 저는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겠기에 우선 큰 아이를 잠시 시댁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 등에 얹혀 몸을 흔들며 우는 아이를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내 자신이 그렇게 한탄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만 깜빡이며 하늘을 쳐다 보았습니다. 서울로 상경해 시동생댁에서 보름 동안 지내면서 마음중은 시동생과 동

“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내 자신이 그렇게 한탄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

“ 그러나 결혼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속에 한 결혼을 이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미울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을 이해하는 지라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 죄없는 내 아이. 책임없이 남기만 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말없이 아이의 옷가지를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지만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발걸 닿는대로 첫 번째 보이는 집에 계신 스님께 사정을 털어주고도 할 것이라는 결심만 있었습니. ”

오 정 숙 (홍제동 정토교인)



정토교인

<p>◆ Let one cultivate (the society of) a friend who is learned and keeps the Dhamma, who is magnanimous and wise, knowing the meaning (of things and) subduing his doubts,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p> <p>널리 배워 지혜를 아는 자상적이며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벗을 가까이 하라. 이는 이로운 일이니 의심할 것 없이 진실을 말하면서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p>	<p>◆ Not adorning himself, not looking out for sport, amusement, and the delight of pleasure in the world, (on the contrary) being loath of a life of dressing, speaking the truth,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p> <p>세상의 유희나 오락 혹은 쾌락에 젖지 말고 관상도 가지지 말라. 꾸밈 없이 진실을 말하면서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p>	<p>◆ Having left son and wife, father and mother, wealth, and corn, and relatives, the different objects of desire,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p> <p>자녀도 부모도 곡식도 재산도, 친척이나 모든 욕망까지도 다 버리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p>	<p>◆ This is a tie, in this there is little happiness, little enjoyment, but more of pain, this is a fish-hook, so having understood, let a thoughtful man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p> <p>"이것은 집착이구나. 이곳에는 즐거움도 상쾌한 맛도 없고 괴로움뿐이다. 이것은 고기를 낚는 낚시야구나" 이와 같이 깨달고 현명한 사람은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p>
---------------------------------------------------------------------------------------------------------------------------------------------------------------------------------------------------------------------------------------------------------------------------------------------------------------------	---------------------------------------------------------------------------------------------------------------------------------------------------------------------------------------------------------------------------------------------------------------------------------------------------------	---------------------------------------------------------------------------------------------------------------------------------------------------------------------------------------------------------------------------	-------------------------------------------------------------------------------------------------------------------------------------------------------------------------------------------------------------------------------------------------------------------------------------------------

####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수타니파타 13

한명우 기자

## “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

# GRAND FANTASIA

###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전철철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함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철철에 25mm 이상 선을 사용한 워드 스트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에 표시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박을 피할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전문 화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양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신체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품의 나라를 편다

##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 생활속의 불교 ④

# 남의 목장의 소를 세며 사는 사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임을 감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면 공적사회가 중요하고 국정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국인들도 갈팡질 감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간이 지속되면 자칫 나라 망하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캄피스로 원을 그릴 때 중심이 흔들리면 둥근 모양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는 것과 같다.

**개** 인의 삶에서도 이 '중심감'이 안 배워 중요하다. 인생의 길, 학문의 길, 수행의 길에서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삶은 일그러진 모습이 된다. 둥근 원, 완용의 삶을 구현하기 어려워진다. 학문을 한다는 사람이 평생을 바쳐 남의 업적이나 뒤지고, 남들은 뒤라고 했는가에 관심을 쏟는다면 그는 끝내 '자기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수** 행의 길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그 수행이란 아무리 노력과 시간과 재물을 바친다 해도 평생 우왕좌왕에 그치고 만다. 제 스스로는 열성스런 불자라고 할지 모르나 고착해야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하며 환상을 좇거나 신장의 가르침을 갈구하거나 도덕 높은 스승을 찾는다며 몸만 불주하게 된다. 심지어는 뱀 해놓고 벌고, 뱀 해놓고 벌고 부적을 만들어 뱀에 붙이고 배개 밑에 넣고 용에 지니고..... 온갖 미신 짓을 하기도 한다. 이사하고 결혼하는 데도 삼이 꺼졌으니 뱀뱀이 안 좋다는니, 용달이라느니 하면서 남의 말 듣고 갈대처럼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삶을 살아간다.

**중** 심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비유하자면 빈 집과 같다. 빈 집에는 부랑자들이 오며 가며 제 멋대로 드나든다. 못 김승, 빌레들도 제 김처럼 들락거린다. 그러니 머지 않아 창문 켜지고 벽 뒤편

지고 기둥 찍어 괴랄하게 된다. 때로는 엉뚱한 놀이 들어와 제 깊은 양 주인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중심을 잃은 사람의 삶은 세월이 흐를수록 심신이 황폐해져 속절없이 병고에 난에 시달리게 된다.

**부** 처님께서는 삶의 중심 감기에 대해 '법등명 자등명'으로 대답하셨다. 자성부처에 귀의하고 가르침을 직교로 삼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자칫 현혹되기 쉬운 명료와 청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법'을 근본으로 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래야만 비포스' 누구나 천상천하유아독존의 그 독존(獨尊)이라 이름 만하다고 하셨다.

**현** 대과학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불자라고 자부하는 이들 가운데 도덕 찾고 영행 찾고 부처 찾는 이들이 있다. 오관을 솔솔하게 갖추

고 태어났으면서도 자성부처를 찾는 생각은 안 하고 밖으로 두리번거리며 남이 해 놓은 것을 구걸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들이 있다. 제 목장은 돌보지 않고 남의 목장의 소를 세는 사람들이다.

**한** 선사는 말한다. "내게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내게 준 것이고, 내게 주장자가 없다면 내 주장자를 빼앗으리라." 자성부처에 대한 믿음, 일체가 나의 근본과 되어 아님을 확고히 믿는 것. 그것이 '중심감'이 주장자 굳게 세우는 것이다. 인생 길, 학문의 길, 수행의 길에서 자신의 주장자는 있는가? 달! 달! 달!

**협찬: 한 마음**